

News / Issu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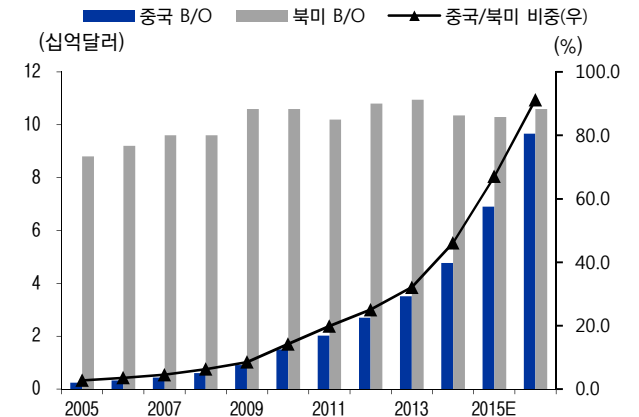
- 2015년 중국 B/O 시장은 436억 위안(YoY +48%), 약 70억 달러에 달할 전망(관람객수는 YoY +50%, 12.5억명)
- 북미 박스오피스 시장은 2015년 103억 달러(관람객수 12.6억명)로 전년 수준 대비 보험세 유지 예상
- 글로벌 박스오피스 시장은 388억 달러(YoY +6.6%)로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는 평균 1% 성장에 그칠 전망

Implication

- 중국시장은 당초 2018년경 미국을 넘어설 것으로 봤으나, 예상보다 성장속도가 빨라 내년이면 미국시장 규모와 비슷한 수준으로 커질 전망 (2016년 중국 B/O 시장이 북미 전체 B/O 시장의 90% 이상 규모 예상)
- 한국 B/O 시장은 1.71~1.72조원(YoY +3% 수준), 관람객수 약 2.17억명(YoY +1%)으로 올해를 마감할 전망, 우려했던 대로 2008년 역신장을 기록한 이래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
- 자국시장의 성장 둔화, 중국시장의 예상보다 빠른 성장세로 국내기업들이 중국시장에 안착하여 수익창출을 하기까지 주어진 시간은 더욱 짧아지고 있다는 판단

Call

- 1 내년에는 중국사업 진출 기대감에 따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보다는 현지 시장안착 여부와 수익창출능력에 대한 검증이 주를 이룰 전망
- 2 올해 기준으로 기진출하여 가시적 성과를 올린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할 것으로 예상함



Compliance Notice

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(작성자: 김현웅)

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될 수 없습니다..

-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.

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

구분	투자등급 guide line (투자기간 6~12개월)	투자등급	적용기준 (향후 12개월)	투자의견 비율	비고
Sector (업종)	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 단계	Overweight (비중확대) Neutral (중립) Underweight (비중축소)			
Company (기업)	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 단계	Buy (매수) Hold (보유) Sell (매도)	+20% 이상 기대 -20% ~ +20% 기대 -20% 이하 기대	90.2% 9.8%	2015년 2월 2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4 단계 (Strong Buy / Buy / Marketperform / Sell)에서 3 단계 (Buy / Hold / Sell)로 변경
		합계		100.0%	투자의견 비율은 2014. 10. 1 ~ 2015. 9. 30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(최근 1년간 누적 기준. 분기별 갱신)